



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

고명환

- 카프카의 변신 : 벌레가 되어서야 비로소 고정관념에서 탈피 가능. 진짜 자신이 원하는게 무엇인지.
- 내면의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 보이고 들린다.
- 쇼펜하우어 : **직관이 개념 앞에** 있어야 한다.
- 죽음앞에 가서 “**나는 나로 살았는가?**”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.
- 직관을 통해 강렬하게 느낄 수 있다. 당신의 소명을.

😊 지하생활자의 수기

😊 돈키호테

😊 그리스인 조르바

😊 이방인

😊 원칙 (레이달리오) :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것이 매우 중요하다.

-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닳아서 사라지는게 훨씬 아름다운 삶이다.
 - 칼융 '그림자원형' : 인간의 본성
 - 남에게 총고하기는 쉬운일이나 나를 아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.
 - 불평이 많은 이유 :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.
 - 임계점을 뚫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: "꾸준함"
- 견디며 하는 노력이 아니라, 즐기며 하는 의지

인간의 대지 (생텍쥐페리)

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

토지 (박경리)

안나카레리나, 이반일리치의 죽음

몰입 (칙센트미하이)

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

- 결핍이 만족을 낳는다. 풍요가 아니라. - 칼융
- 체 게바라가 추대 받는 이유 : 자신을 부족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
- 몸이 아니라 정신이 젊어야 한다. 젊다는 것은 창의적인 생각이 봄날 새싹 돋듯 무수하게 쏟아지는 것이다.
- 최진석 교수 : 문명 3개층 - 물건, 제도, 철학
- 마땅히,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?
- 나를 위해 생산하지 말고, 남을 위해 생산하라.
-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(몰입) 사람에게만 열려있다.
-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빛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라.
- 스파르타인들의 삶이 편안했던 것은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.
- 우리의 불행은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. - 에밀
- 인간은 고통을 느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해 준다. 고통속에 쾌락이 있는 이유.
- 고통없는 쾌락의 대표 : 도박 + 마약

-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? 고통, 시련, 역경 속에 있다.
- 힘든 시간을 견디면 반드시 봄은 온다.

👉 소유냐 존재냐 (에리히프롬)

👉 펠로폰네소스 전쟁사

- 가장 높은 단계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실천하지만,
중간 단계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하고,
낮은 단계의 선비는 도를 들어도 그것을 크게 비웃어 버린다.
- 지지 않는 방법 : 고전읽기
- 생택쥐페리 : 1900년~1944년.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(조종사)
- 두 팔 벌려 죽음을 꽉 안아라. 아모르파티.
- 그들이 강한이유 : **우리는 주춤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는다.**
- 용기 :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할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, 어쨌든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것. - 앵무새 죽이기
- 모든 것이 '기대감'에 묻힐 때, 행복으로 충만해 진다. 우울감이 없어진다.
- 말보다 글이 강하다.
- 정신 건강을 위해 고전을 읽어야 한다.